

카타르에서 요르단까지

○ 이름 : 이정현

○ 근무기구 및 부서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Donor Relations Unit & Strategic Partnerships Division,

○ 직위: UN Youth Volunteer in Private Sector Donor Relations / UN Youth Volunteer in Strategic Partnerships

○ 지원경로: UNV 청년봉사단 6기

○ 근무기간: 2018.2.3. - 2019.8.2.

시작하면서

수기를 시작하기 전, 내가 겪어 왔던 일 중 어떤 부분을 공유해야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막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다. 1. 유엔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걸까? 2.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을까? 코이카 요르단 사무소 YP를 거쳐 유엔 청년 봉사단 파견을 마치고 난 후에도 이 시점에도, 나는 끊임없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다.

다만 실제로 유엔청년봉사단으로 근무하고 난 후 나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접한 업계 선배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을 더 잘 대답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다. 나에겐 2016년 코이카 YP 합격 통지를 받았던 순간, 그리고 2017년 유엔청년봉사단 선발 통보 이메일을 받았을 때가 잊히지 않는 순간이다. 그동안 쌓아왔던 크고 작은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건 눈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새 출발의 순간, 결정의 순간 그리고 내 커리어에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기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조지타운 카타르 외교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국제기구를 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꼭 유엔에서 일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현실주의에 강력하게 끌렸고, 각 국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협력한다는 유엔의 이상주의에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을 가졌다.

또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전통적인 모델이 힘을 잃고 다국적기업, 테러리스트 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가 부상하는 가운데 강제집행력

을 지니지 못한 유엔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세계 경찰로서, 해결자로서의 유엔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유엔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느꼈다.

노력의 방향

졸업반부터 많은 유엔 인턴십 기회에 직접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노력과 시간을 쏟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 같다. 상당수의 유엔 인턴십은 기술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원한다. 내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당시 업무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인턴십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지식이나 언어적 역량(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등 유엔 공용어)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에 서류 통과가 힘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UNV Roaster에 프로필을 만들고 다양한 Special Call에 지원했지만, 이 또한 통과되지 않았다.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특히 유엔은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에 처음부터 인턴이나 컨설턴트를 지원하기보다는 한국인 지원자를 위해 책정된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학생일 때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점이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대학생 때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후에 외교부 UNV 프로그램 지원 시 같은 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을 것이다. 대학생 때는 준비가 부족했고,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기에 기회를 놓쳤다. 1. 유엔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보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다양한 기회에 촉을 새우고 끊임없이 정보를 구하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외교부와 코이카에서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지원자의 역량, 선발자의 프로그램 수료 전과 후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잘 아는 것이 국제기구 진출 확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코이카 YP

졸업 후 운이 좋게도 코이카 Young Professional (YP)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으며, 4개월을 성남 본부, 8개월을 요르단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무상원조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코이카 요르단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UNDP-코이카 청렴 건축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보조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제적으로 극찬을 받은 “청렴 건설 행정 시스템”을 요르단 실정에 맞춰 시행한다는 취지로 UNDP 측에서 코이카에 제안했으며 나는 타당성 조사에 앞서 제안서 번역, 공공 건축과 행정 분야 요르단 실정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전문가팀이 요르단 관련 부처와 회의를 할 때 배석해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지원했던 경력이 후에 UNV로 선발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UNV 선발

YP 프로그램을 마치고 국내 NGO에서 근무하고 있던 도중 뜻밖에 연락을 받았다. UNV Roaster에 등록된 내 프로필과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서 원하는 조건이 맞는다며 UNV 측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UNV Roaster에 프로필을 만든 후 꾸준히 업데이트 해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요르단 필드 사무소에 지원한 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유엔청년봉사단 선발 시 작문 시험과 화상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내 경우에는 인터뷰를 비디오로 녹화해 보냈고 선발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은 없었다.

다시 요르단으로

10월 중순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11월 말에 UNV 사무소에서 선발 가능성이 크다는 안내 이메일을 보내왔다. 12월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다음 해 1월 말 독일 본에서 APT Training을 마치고 바로 요르단으로 출발, 2월 3일 근무를 시작했다. 이미 코이카 요르단 사무소에서 YP로 근무할 당시 압만에서 8개월 거주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시 자체는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졌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는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가자(Gaza), 서안지구(West Bank),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지의 수용소에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을 위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며, 현재 중동 지역 약 700개의 학교와 144개 보건소를 운영해 난민에게 필수적인 교육, 보건 및 구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기구와 비교했을 때 현지 직원 비율이 95%로 굉장히 높으며 이들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HCR)와 달리 오직 팔레스타인 난민만을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유엔 기구 사이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점이 많은 기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반세기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아랍 지역 전역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퍼져 사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난민에게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UNRWA는 난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로 빠지지 않고 정착 국가에 융합되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UNRWA 재정의 대부분은 유엔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지하며, 만성적인 재정난은 기구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America First” 정책 기조를 펼치며 UNRWA 지원을 대폭 삭감한 이후 재정난은 한층 악화되었다.

실제로 기구에 근무하며 상황의 긴급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매주 회의마다 교사 월급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여름 방학 후 정상적으로 운영 여부가 가능할지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재정난

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구 또한 긴축조치에 들어섰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직원이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기구를 떠났다.

원래 직무기술서 상 명시된 내 직무는 Youth Volunteer in Private Sector Donor Relations로 민간분야 기금모금이 주요 업무로 배정되었으나, 트럼프 정부의 UNRWA 지원 삭감 후 기구가 대대적인 기금모금 캠페인 #Dignity is Priceless을 시작한 이후 민간분야 기금모금 업무의 대부분이 캠페인 TF (Task Force) 팀으로 건너갔다. 사수 (Donor Relations Officer, P3)는 처음 직무기술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와 내가 실제 업무를 시작한 시간 사이에 기구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앞을 맡게 될 업무가 직무기술서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적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배정받은 Donor Relations Unit 주요 업무는 UNRWA에 지원한 공여 기구 및 사기업에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으로, 나는 UNRWA 내 교육부서, 보건부서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후 전달받은 자료를 사용해 기금이 팔레스타인 난민에 제공되는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했는지 보고서로 작성했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정부에서 UNRWA 교육프로젝트 기금으로 \$2,308,245을 지원했으며, 결과물로 UNRWA 측에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나는 위 교육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교육부서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전후 학생 출석률과 기금으로 구매된 교과서 배부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건축 및 인프라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 학교 보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 교육기금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난민 학생의 교육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UNRWA 교육 프로그램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소통 능력 등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었으며, 유엔 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기금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지 필드 경험이 없으면 알기 힘들었을 귀중한 지식을 익혔다고 생각한다. 결과 보고서, 중간 보고서 등의 프로젝트 산출물 작성 외에도 기금 제안서(grant proposal) 작성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은 보건부서와 협력하여 스페인 공여 기구 AECID에 제안서를 제출해 약 €400,000가량의 보건 지원 기금 유치한 일인데 해당 기금은 요르단 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보건소 운영기금으로 사용되었다.

UNV 이후

UNV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상당히 많은 고민과 방황을 했다. UNV는 유엔에 첫발을 들이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종료 이후 기구에 정착하거나 다른 유엔 기구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기구 내 컨설턴트 포지션에 지원했지만, 재

정난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좀 더 안정적인 국내 정규직 취업이 아닌 UNV를 선택한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UNV 프로그램 수료 이후 약 일 년 삼 개월이 지난 이 시점 나는 국내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에서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귀국 후 사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개발 협력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국제기구로 돌아왔으니 커리어 상으로 유턴을 했다고 생각한다. UNHCR을 포함한 몇몇 유엔기구들이 UNV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내부지원자 (Internal Candidate)의 지위를 주고, 이는 수료자가 향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일한 UNRWA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동지역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을 위한 기구의 특성상 UNICEF나 UNDP 등 전 세계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구에 비해서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었다.

만약 다시 UNV 청년봉사단을 한다면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을 더 촘촘히 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근무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ICDH)는 한국정부의 지원 하에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섹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UNV로 근무한 기관에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익혔던 기술이 현재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례로 해외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필요한 소통능력이나 타겟 청중에게 맞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능력은 현재 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외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업무에도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맺음말

수기를 작성하며 졸업 후 약 5년간의 커리어를 돌아볼 수 있었다. 졸업 후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다시 시작한다면 다르게 할 부분도 분명 있지만,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한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제기구 진출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이카 YP, 유엔청년봉사단 그리고 현 직장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장했고, 내 선택과 능력에 확신을 키울 수 있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해 줄 수 있다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덜 불안해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국제기구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꼭 시작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진 부분이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접하는 정보와 밖에서 접하는 정보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회를 잡는데 지원자의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 접근성이라고 할 때,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프로그램 수료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최대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끝/